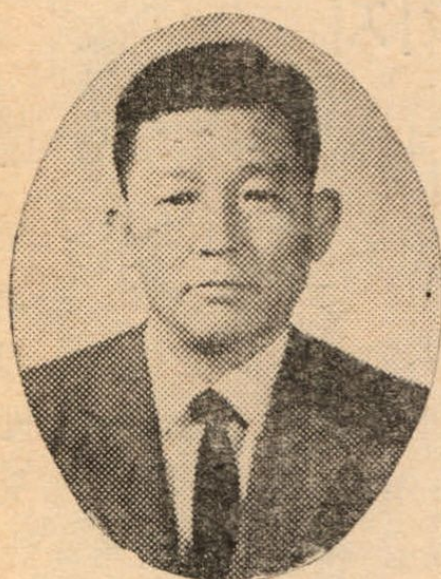




프로이드의 생애와

그의 정신 분석학

교감(중) 김 덕 용

I. 씨그먼드·프로이드는 1856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이벨그에서 탄생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으며 1859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원으로 이사하여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당할 때까지 78년간—거의 생애 전부를 프로이드는 뉘른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후 영국 런던에 망명하여 2년후 1939년에 83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청년시대에 그는 철학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에 흥미를 가졌었는데 다재다능하여 음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 깊은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특히 문필에 능하여 독일 문학의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특히 희랍신화에 심취해서 그의 저서속에서 희랍신화적인 인유가 도처에 스며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학설 즉 정신분석학을 극히 상식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II. 프로이드는 그의 나이 17세때 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생물 에너지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1881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서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의학자로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 <에너지학>이었으며 특히 정신 작용을 기초해 주는 것이 신경계통과 신경역동학이라 규정지어 그의 역동적 심리학을 창시하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그 당시의 반유대주의 풍조와 가족부양의 생활비 문제 그리고 그의 존경하는 스승 에른스트 부룩케의 충고로 인해 의사 개업을 시작했는데 이 임상경험이 그의 학설 정립에 크게 공헌하여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사상 결정적인 위치에 오르도록 한 것이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앞서 말한 바 에너지의 심리학이며 여기서는 약술의 편의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 1) 프로이드까지의 과학적 추세
- 2) 퍼슨넬리티의 구성
- 3) 퍼슨넬리티의 역학

1) 프로이드까지의 과학적 추세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

표됨에 이어 독일의 구스타브·휘넬과 그레골 멘델등의 생물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독일 물리학자 헤르만·헤름홀츠의 “에너지 보유의 원칙”등은 프로이드로 하여금 인간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흥미를 돋구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의학이라고 생각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프로이드가 사사한 에른스트·부룩케가 1874년 발표한 저서에서 “생물체는 화학이나 물리학의 법칙에 적용되는 역동적인 체계이다”라는 견해에 공명하여 프로이드는 20년간의 연구끝에 “역학의 법칙은 인간의 신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퍼슨넬리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의해 그는 퍼슨넬리티 내부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변형과 교환을 연구하여 프로이드 심리학을 정립시켰다.

2) 퍼슨넬리티의 구성

프로이드는 퍼슨넬리티의 구성요소를 id, ego, superego의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 요소들을 번역하면 id=원본능, ego=자아, superego=초자아라고 하는데 id는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보다 그대로 id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세 요소가 통일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이며 이것들이

협동하여 작용하므로써 사람은 환경과 그 사이에서 능률적이며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의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반대로 그 세 요소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부적응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만족치 않으며 능률도 줄게 된다. 다음에 id, ego, superego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프로이드는 id가 본능적 에너기의 원천이라고 보며 그 에너기는 내적인 행동이나 꿈과 같은 환상적인 소원으로 발산된다고 말하고 있다. id의 목표는 사람을 고통스러운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을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라고 한다.

ego(자아)는 일차적으로 인식과 지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자아의 주요 기능은 외부 세계와의 교섭을 통해서 원본능=id의 본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아가 조작되는 원리를 현실원리라고 하는데 현실원리에 의하여 욕구의 무작정한 방산을 억제하거나 포기시켜서 현실세계에서 방산대상이 발견되거나 생겨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미루어 가는 것이다. Superego=초자아는 자아이상과 양심의 두 가지 제도로 되어있다. 자아이상은 이상과 가치관과 도덕률로 되어

있고 양심은 본능적인 충동의 발산을 윤리적으로 금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자아는 완성원칙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3) 퍼슨넬리티의 역학

프로이드는 당시에 급격히 파급된 <에너지> 이론에 공감하여 <에너지> 불변의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작용 역시 물리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의 운동이며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신체 내의 에너지는 어떤 정해진 원리에 의하여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즉 그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본능에 연유한다. 본능이란 그 원천과 목표와 대상 그리고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능은 신체적 흥분을 말하며 목표는 그 흥분의 제거이고 대상이란 목표가 달성되는 방법, 그리고 추동력은 본능의 강도를 말한다. 자아나 초자아는 본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의 달성을 저지하려고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있다. 드라이브(의욕, 취향)나 욕구가 제재를 받거나 억제를 당하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는 정신생활을 감소시켜서 행동력으로 돌리는 역동적 구상이 정신분석학의 특성이라고 했다.

만일 욕구 제동력이 욕구 지향력 보

다 강하면 본능적 에너지는 발산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로 신체 구조 내에서의 긴장이 증가된다. 프로이드는 그의 정신분석학설 초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창설했는데 그는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만일 정신 현상에 투입한 에너지가 항거력보다 강력하고 그 정신 현상이 언어와 관련이 맺어진다면 그 에너지는 의식이 되며 반면 제일 충족이 반대 충족에 비하여 약하고 언어와 관련을 맺지 못한다면 그 정신내용은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심리작용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도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어떤 생각들은 쉽게 의식으로 변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은 전의식이라고 한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근심하게 되는데 그 근심 걱정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 걱정 즉 객관적 걱정, 신경성 불안 그리고 도덕적 걱정으로 구분했다. 객관적 걱정은 외계의 위험에 의해 야기되는 공포이고 신경성 불안은 원본능의 힘이 합리적인 자아의 통제를 압제적으로 억누르고 일을 저질렀을 때 생기는 것이며 도덕적 불안은 죄악감이나 수치감 등으로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불안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람을 범하는 초자아 본연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 종류의 불안은 모두 자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아는 당연히 위협을 원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그 불안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 해결법, 합리화 등등의 방법을 택할 때도 있는가 하면 현실 부정이나 왜곡 등의 부정적 방법들을 택할 때도 있다. 자아의 주된 방어 기능들은 억압, 투사, 반동 등인데 억압은 다시 말하면 위협을 자아내는 불안을 의식권 외에 몰아내는 것이고 투사는 원본능이나 초자아에서 오는 것과 같은 내부에서 오는 위협의 근원을 외부로 전향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외부로 불안의 원천을 몰아내는 것은 외부적인 불안이 내부적인 것에 비하여 훨씬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개성 발달의 윤곽은 다섯 살까지 이루어지지만 성인이 다 돼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간다.

다음의 5개 상태들은 개성을 발달시키는 것들이다.

㉠ 성숙 ㉡ 좌절 ㉢ 갈등 ㉣ 부적응 ㉤ 불안

본능의 동일화, 전이, 융합은 개성 발달이 계속되는데 있어서 주요적 방법이다. 동일화라는 것은 개성이 외부환경의 사상들과 협조하거나 동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도덕률을 자기 자신의 개성의 내부 것과 동일시 하므로써 협조하는 것을 배우며 초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전이는 한 본능적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시켜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며 융합은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하므로써 여러 가지 본능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 전이, 융합의 결과로써 사람들은 흥미, 태도, 애착등 다양성있는 발전을 하게 된다.

